



# 박태환, 내달 아시안게임 출전 포기

“최근 좋은 기록 낼 수 있는 컨디션 아니란 것 인지”

“앞으로 행보 생각할 시간 가질 예정” 은퇴 말 아껴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9·인천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했다.

박태환은 지난달 29일 소속사인 팀지엠피를 통해 “오는 8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6년부터 일주일 이상 쉼 없이 혼자 훈련을 해왔지만, 최근 운동을 하면서 제가 좋은 기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출전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직 은퇴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의 제 행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은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호주에서 훈련 중이던 박태환은 “이렇게 급하게 호주에서 글을 쓰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후시라도 다른 선수에게 아시안게임이라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글을 맺었다.

박태환은 올해 4월 말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인 2018 국제대회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자유형 100·200·400·1500m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 명단에 박태환은 전 종목 탈락이라는 이목을 끌었고,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르 도하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박태환은 자유형 200m·400m·1500m 금메달로 3관왕에 등극,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200m·400m 금메달을 거머쥐며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을 달성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따지만 대회 개막 직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여 메달을 모두 박탈당했다.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징계와 대한체육회의 반대 등으로 준비 기간이 충분치 못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박태환은 전 종목 탈락이라는 이목을 끌었고,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박태환은 자신의 4번째 아시안게임 무대인 자카르타 대회에서 명예회복을 노리며 훈련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달 초 아시안게임 점검차 나선 대회에서 기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6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2018 TYR 프로수영 시리즈 대회에 출전한 박태환은 자유형 800m에서 7분57초88로 은메달을 따지만, 자유형 200m와 자유형 100m에서 결승에 나서지 못했다. 주종목인 자유형 400m 결승에서도 3분55초87의 저조한 기록으로 7위에 머물렀다.

다시 호주로 돌아가 훈련하던 박태환은 좀처럼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자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선수가 아직 호주에 있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해 앞으로의 계획과 휴식 기간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며 “선수가 국내로 들어오는대로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축구의 신’ 호날두-메시 러시아월드컵은 여기까지

16강 동반탈락

축구의 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와 리오넬 메시(31·아르헨티나)는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란히 16강에서 탈락했다.

포르투갈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피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16강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호날두는 선발 출전해 포르투갈의 공격 선봉에 섰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침묵했다. 팀도 우루과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앞서 펼쳐진 16강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도 프랑스와 난타전 끝에 3-4로 패했다. 메시는 도움 2개를 기록했지만 직접 골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8강에 진출할 경우 호날두와 메시의 사상 첫 월드컵 맞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었지만 동반 탈락하며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호날두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모로코와 2차전에서 헤더골을 넣는 등 4골을 몰아치며 팀을 16강에 올려놓았다.

포르투갈은 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호날두의 활약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유로 2016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만큼 최고의 퍼포먼스로 2006년 독일 월드컵 4강을 재연하려 했다.

더욱이 호날두는 이날 경기를 통해 독일의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가 보유한 월드컵+유로 대회 최다 출전 기록(88경기)과 동률을 이뤘다. 8강 무대를 밟는다면 최다 출전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호날두는 우루과이의 두터운 수비벽에 막혀 제대로 된 슈팅 한 번



시도하지 못했다. 4번의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조별리그에서는 총 7골을 넣었지만 토너먼트 득점은 전무했다. 이는 메시도 마찬가지다.

호날두와 메시는 최근 10년 동안 엄청난 활약으로 클럽에서는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 축구계를 양분했다. 스��인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에이스로 맞대결을 펼치며 명승부를 연출했다.

그 동안 한 번도 월드컵에서는 미주진적 없는 두 선수가 16강을 통과하면 세기의 대결이 성사될 수 있었으나 동반 탈락하면서 꿈의 대결은 물거품이 됐다.

앞으로 두 선수가 월드컵에서 맞대결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호날두는 37세, 메시는 35세가 된다.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 기량을 보여주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나이다. 그때까지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월드컵 무대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을 꼭 한 번 보고 싶었던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는 이날 결과가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뉴시스

# 최다빈,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개 대회 초청

임은수 · 이준형 · 차준환 · 민유라-김민 한 차례 초청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간판' 최다빈(18·고려대)이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개 대회에 초청됐다.

다가오는 시즌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개 대회에 초청받은 것은 최다빈이 유일하다.

ISU는 1일(한국시간) 2018~2019 시즌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다빈은 10월 26~28일 캐나다 퀘벡주 라발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2차 대회 '스케이팅 캐나다 인터내셔널'과 11월 9~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4차 대회 'NHK 트로피'에 초청받아 출전한다.

ISU는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대회 성적과 시즌 최고점 등을 계산해 그랑프리 시리즈 6개 대회에 선수를 배정한다.

올해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자신

의 ISU 공인 역대 최고점인 199.26점을 기록하며 7위에 오른 최다빈은 '피겨여왕' 김연아를 제외한 한국 선수의 역대 올림픽 여자 싱글 최고 성적을 냈다.

최다빈은 2차 대회에서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러시아)를 비롯해 캐브리엘 데일리먼(캐나다), 미야하라 사토코(일본) 등 평창올림픽에서 경쟁했던 선수들과 또다시 맞붙는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기대주인 임은수(15·한강중)도 11월 16~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로스텔레콤 컵'에 한 차례 초청을 받아 시니어 무대 데뷔전을 눈앞에 뒀다. 평창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알리나 자기토크바(러시아)가 이 대회에 나선다.

한국 남자 싱글의 간판으로 떠오른 차준환(17·휘문고)은 2차 대회에 최다빈과 함께 나선다. '민형



이준형(22·단국대)은 4차 대회에서 최다빈과 동반 출전한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스타로 떠오른 아이스댄스의 민유라(23)-알렉산더 켈린(26)은 10월 19~21일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개최되는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에 한 차례 초청됐다.

한국에서 패어 부문 초청자가 전무한 가운데 북한의 럽대욱(19)-김주식(26)은 두 차례 초청을 받았다. 11월 2~4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3차 대회와 11월 23~25일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개최되는 6차 대회 '프랑스 인터내셔널' 등 두 개 대회다.

포럼을 이끌아 왔으며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2022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독일은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에 일격을 당하며 80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뢰브 감독은 한국전 패배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을 이기지 못한 자체가 쇼크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기성용, 뉴캐슬에 새 등지...2년 계약

'캡틴' 기성용(29)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30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기성용과 2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뉴캐슬은 “기성용은 취업비자를 받은 후 다음달 2일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북동부에 있는 구단인 뉴캐슬은 지난해 리그 10위를 기록했으며 리버풀 베니테스(58)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다.

베니테스 감독은 “기성용은 프리미어리그와 A매치 경험이 많은 선수다. 영입을 고민하지 않았다. 그의 영입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기성용은 “뉴캐슬에서 경기를 치를 때 멋진 분위기와 팬들의 열정에 놀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난 2006년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기성용은 2009년 셀틱을 거쳐 2012 EPL 스완지시티로 등지를 옮겼다. 2013~2014 시즌 선덜랜드에서 임대로 뛰기도 했던 기성용은 올시즌을 끝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된 스완지시티와 결별했다.

# 독일 축구협회, 뢰브 감독 재신임

“2022년까지 맡긴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전 패배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돼 일제감치 독일로 귀국한 요아힘 뢰브 독일 대표팀 감독이 계속 팀을 이끌 전망이다.

‘리벤딩 챔피언’ 독일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2연속 우승에 도전했으나 1승2패로 F조 최하위를

기록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독일 dpa 통신은 1일(한국시간) “독일축구협회(DFB) 이사회가 뢰브 감독을 재신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축구협회 이사회는 뢰브 감독에게 계약기간인 2022년까지 팀을 계속 맡기기로 결정했다.

뢰브 감독은 2006년부터 독일 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 대한민국-독일의 경기, 한국 김영권(19번)이 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주심은 미국의 마크 게이거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은 이 골은 심판의 비디오 판독 결과 골로 인정됐다.

# 폭스스포츠 “한국 월드컵 성적 ‘C+’ 아시아 3위...이란 1위·일본 뒤이어”

폭스스포츠 아시아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1승2패(승점 3점)로 F조 3위로 대회를 마감한 한국대표팀을 ‘C+’로 평가했다.

이 매체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강팀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1승1무패를 기록한 이란에게 ‘B+’의 최고 성적을 줬다.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한 일본이 ‘B’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성적은 아시아 국가 중 3위에 해당된다.

폭스스포츠 아시아는 “한국은 스웨덴(0-1), 멕시코(1-2)에 패하며 위기에 몰렸지만 독일전(2-0)

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1. 2차전에서 어이 없는 실수를 범해 기록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의 16강 진출 실패로 독일전의 승리가 빛을 바랬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승도 올리지 못한 호주(1무2패)는 C를 받았다. 조별리그 최종전에 국가대표팀을 교체시킨 개최국 러시아에 0-5 완패를 당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가 ‘C-’를 받았다.